

건강검진의 중요성

- 제 2 차 언론인 초청 간담회 주제 발표 내용

김 상 인

지난 8월 25일 개최되었던 건협 언론인 초청 간담회에서 김상인 서울의대 교수는 “건강검진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원활한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과 의료계의 협력체계 정착에 관해 말했다. 본 글은 김 교수의 발표문을 게재한 것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은 1861년에 이미 영국의 의사 Horace Dobell이 말한바 있으나 그후 100여년동안 의학은 새로운 질병을 발견하고 이미 질병에 걸린 환자를 진료하는 방향으로만 주력하여 오늘날의 임상의학 즉 치료의학을 발전케 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현실은 아직도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충분한 양질의 의료를 베풀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으나, 2,000년대를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장하듯이 숨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미리 예방하고, 국민에게 좀더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도록하는 현대적 예방의학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옛부터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비롯된다고 하였고 질병에 걸린 후에 치료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는것이 사회경제학적 측면에서도 훨씬 바람직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건강과 질병의 정의는 매우 어려운 것이며 평소에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얼마든지 숨은 병적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건강상태에도 많은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국민전체의 건강을 보

다높게 향상시키고저 하는데 건강검진의 중요성과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다.

건강 검진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며 출생 전후의 유전질환 또는 대사이상 검사, 학동기의 건강검진, 당뇨병, 고혈압을 위시한 성인병검진, 부인암 조기진단,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간염검사등등 많은 예를 들수있다.

유전성질환에 대한 검진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先天性 染色體 異常因子 保有兒等を 조기 발견하여 선택적인 임신중절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내포한다. 검사는 양수를 채취하여 染色體 분석을 한다.

출생후의 선천성대사 이상질환은 많은 종류가 있으며 예를들어 정신박약, 지능장애, 건련, 적색모발을 나타내는 「헤닐케톤유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헤닐아라닌을 제거한 우유를 줌으로써 정상적인 발육을 할수 있으며 「가스리(Guthrie)검사법」으로 많은 종류의 대사이상질환을 비교적 쉽게 선별할수있다.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광범위한 검진이 시행되고 있다. 학동기의 검진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기생충검진을 하여 왔으나 학동기가 성장 발육이 빠르시기이고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종류의 건강검진이 필요한것이다. 빈혈검사, 간염검사, 신장병, 당뇨병 및 심장병검진등을 들수있다.

성인병검진은 건강상태 전반을 선별

하는 건강진단과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암등 소위 성인병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으로 구분할수있다. 전자는 혈청 단백질과 콜레스테롤 및 혈색소 측정등 영양상태를 알수있는 검사를 위시하여 광범위한 검진을 하고 있으며 후자는 의사의 문진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특종검사를 할수도 있고 기본적인 일차검진항목을 포괄적으로 검사할수도 있다. 이들 검사항목의 대부분은 요와 혈액검체를 가지고 시행하는 임상병리학적 검사이다.

부인암 조기진단은 주로 세포학적검사로 시행되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어떤나라에서는 진행된 부인 자궁암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잘 콘트롤 되고 있다.

간염은 우리나라를 간염왕국이라고 할만큼 국민의 10% 가까이가 B형간염 항원 양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만성활동성 간염, 간경화증, 간암등의 높은 발생율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어 중요한 검진 대상이 되고 있다.

이상 악술한 질병의 조기 발견 내지 건강검진의 방향과 방법은 검사항목의 선택에 있어서 일차선별 검사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정확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검사하여야 하며, 확정적인 비정상 소견이 발견되면 환자를 적절한 전문의료기관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